

국내 최초 다도해 '스카이 투어' 날개 접다



국내 최초로 전남에서 열린 항 공관광(스카이투어·SKY TOUR) 시대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날개를 접었다.

14일 전남도와 신한에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 소형 항공기를

타고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한 눈에 내려다보는 스카이 투어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신한에어는 누적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취항 20개월만 지난 2018년 11월 1일자로 여수 스카

2017년 2월 취항 후 20개월만에 '누적적자'로 중단 전남도 지원마저 끊겨 인건비 등 감당 못하고 막 내려

이투어 운영을 종료했다.

신한에어는 애초 여수공항~모계도~사도~백야도등대~항일암~여수신항~여수공항의 주간노선과 여수공항~순천~광양제철소~여수신항~여수공항 야간노선으로 나눠 매일 10회 운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간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주간만 5~6회 운항했다.

일정 정도 투여 수요가 있었지만 인건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누적적자가 이어져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신한에어는 당초 여수공항에 이어, 무안국제공항을 거점으로 무안공항~팔금도~장산도~팔금도~무

안공항 노선을 포함한 3개 코스를 운항할 계획도 잡았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당장 여수공항에서 출발하는 투어가 재개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낙연 현 총리가 전남지사 시절 야심차게 추진했던 다도해 스카이투어시대가 2년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막을 내린 셈이다.

이 총리는 당시 탑승행사에서 "스카이투어가 전남 관광 5000만명 시대를 앞당기는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성공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한에어 관계자는 "스카이투어가 시작할 때만 해도 전남도에서 1

억원 정도 지원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끊겼다"면서 "인건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야간투어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결국 누적적자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한에어측은 그동안 스카이투어 이용객수나 누적적자액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신한에어 스카이투어는 항공기는 미국 세스나사에서 제작한 그랜드 카리반 208B로 항공거리 1982km, 평균 시속 300km로 14인승이지만 '투어'를 위해 10인승으로 개조해 모든 좌석을 VIP시트로 구성했다. 1인 요금은 5만9000원이었다.

김정환 기자

“설날 세뱃돈, 광주수영 대회 입장권 선물하세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개회식을 포함한 6개 종목 90경기에 대한 입장권 판매를 위해 입장권을 세뱃돈 대신 설날 선물로 전달하자는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일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입장권은 지난 13일까지 약 10일간 2468매, 9240만원 상당이 판매됐다.

개인은 물론 단체에서도 활발히 구매하고 벨기에, 덴마크 등 해외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권 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중국의 수영스타인 쑨양 선수의 팬클럽에서는 이미 입장권 200여 매를 구매하는 등 국내·외에서 구매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조직위는 앞으로 전국 지자체, 교육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등을 순회방문해 단체 구매 판

개회식·90G 입장권 판매 캠페인
2월 15% 조기구매 할인 혜택 제공

촉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해외 공관과 국내 주재 121개국 공(영사관)관에도 입장권 구매 협조 공문을 발송한다.

입장권 구입은 조직위 입장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실시간으로 구매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은 입장권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설 명절이 들어있는 2월까지의 15%의 조기구매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3~4월은 10%, 5~6월까지는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단체 구매 고객은 추가할인을 적용해 최대 4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수영대회 입장권은 개회식과 6개 종목별 경기에 총 41만 9000매(89억4000만원)를 발행한다. 발행량의 90% 이상인 37만 매(75억원) 판매를 목표로 국내에서 80%(30만매), 해외에서 20%(7만매)를 판매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www.i-honam.com
지역공감·미래창조·정통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중소기업 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중기부 광주·전남청, 총 1조 744억원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직무대리 정재경)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금년도 사업설명회를 17일 오후 2시에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설명회는 올 해에 시행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세부사업의 현장설명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정부 지원시책을 이해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설명회와 함께 신규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기술보호 및 유출방지 방법 등을 안내하고 현장 상담부스를 운영하여 전담 직원들이 세부상담을 병행한다.

2019년도 중소기업부의 기술개발 지원사업 규모는 총 1조 744억원이며, 금년 지원방향으로 기술교류 생태계 조성 및 기술개발 사업화 성공률 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과 시장중심으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시행한다.

과제 선정 시, 과제 종료 후 매출 기여도를 핵심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민간투자 등 시장이 검증한 과제를 중점 지원한다.

원거리에 소재하여 금번 설명회에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오는 30일에 전남테크노파크(전남동부권), 31일에는 목포대(전남서부권) 등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설 앞두고 심상찮은 과일 물가...농축산물 1.4배 더 쏠다

내달 1일까지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 추진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잡기에 나선다. 배추·무·사과·계란 등 10대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소보다 1.4배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전 3주(1월 14일~2월1일)간 이 같은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배, 사과 등 과일 가격이 평년 대비 오

를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폭염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한 탓이다. 배의 경우 이달 들어 평년대비 44%, 사과는 15% 오른 가격을 보이고 있다.

소·돼지고기, 계란 등 축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닭고기 소비자가격이 5445원으로 평년(5279원) 수준을 소폭 웃돌고 있다. 입산물의 경우 밤과 대추 등이 평

년 대비 강세를 띄고 있다.

대책기간 시중에 풀리는 10대 성수품의 하루 물량은 7376t이다. 평소의 5412t보다 1.4배 가량 많다.

품목별로는 무(140→270t)와 배(500→800t)가 평소 공급량보다 각각 1.9배, 1.8배 더 시장에 쏟아진다. 배추(400→610t)와 사과(350→530t)의 공급량도 평소보다 각각 1.5배씩 늘린다.

축산물의 경우 소고기는 평시 654t에서 1000t으로, 돼지고기는 2411t에서 2900t으로, 닭고기는 785t에서 942t으로, 계란은 165t에서 206t으로 늘려 공급한다. 입산물인 밤(6.3→17t)과 대추(0.2→1t)으로 각각 2.7배, 5배 시중에 풀린다.

농식품부는 과일의 경우 중·소과(중·小果)로 구성된 알뜰선물세트를 지난해보다 40% 확대해 7만세트를 공급한다. 축산물은 10만원 이하 실속형으로 구성된 한우 및 한돈 선물세트를 총 8000세트 공급한다.

뉴시스

농협은행, 목포중앙시장 화재 피해복구 성금 전달

농협전남본부(본부장 김석기)와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서옥원), 농협목포 신안시군지부(지부장 설준홍)는 최근 화재 피해를 입은 목포중앙시장 인근 상인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재기 지원을 위해 성금 3000만원을 목포시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이와 별도로 피해상

인들이 자금압박을 받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신규 자금지원, 기존 대출금 상환기한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이 골자다. 신규 자금지원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대출 금리는 1.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뉴시스

“정부24’서 연말정산 서류 무료발급 받으세요”

행정안전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국민 편의를 돕기 위해 15일부터 31일까지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24는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안내받고 증명서류를 신청·발급받

을 수 있는 정부 행정서비스 통합 포털로, 하루 평균 30여만 명이 이용한다.

서비스 기간 정부24에 접속하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서류인 주민등록표 등본 재화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7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 정부24 이용자 급증에 대비해 시스템을 보강했다. 또 특정 시간대에 이용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민원24(www.minwon.go.kr)'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